

지역 소식통

고창군, 친환경전기자동차 보급사업시행

고창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 가스 감축과 친환경 자동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보조금액은 승용차 1대당 최대 170만원으로 8월30일부터 9월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해 고창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주민과 판매 소재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 방법은 자원을 희망하는 주민(법인 등)이 전기자동차 영업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영업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다만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해야 하지 못 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읍행정복지센터, 민원 응대 친절 다짐 교육 실시

부안군 부안읍이 민원인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친절한 민원행정 운영을 위한 마음가짐을 다잡고 있다.

부안읍행정복지센터(읍장 김남철)는 주민과의 소통, 주민과 함께하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민원응대 친절 다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안읍 전 직원은 매일 업무가 종료되기 전 민원인들을 친절히 모시기 위해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등 인사말을 제창하면서 친절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최상의 대민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친절한 민원 응대를 위하여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민원인 전용 팩스 설치 △민원실 환경 정비 등을 실시 한 바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노을대교 건립, 기재부 예타 최종 통과

고창군 "30년 숙원 해결"

유기상 군수 "행정절차 조속 진행 사업 시행토록 최선을"

고창군의 30년 숙원이던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인 '고창-부안 국도 77호선 연결(노을대교)'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고창-부안 국도 77호선(노을대교) 건립사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확정 지었다.

노을대교는 고창군 해리면 동호와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를 연결할 전체 7.48km 길이의 다리를 말한다. 완공 땀 62.9km를 우회해야 했던 이동 거리가 단, 7km로 줄어든다. 기존 한나절 넘게 걸리던 거리를 단 1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된다.

특히 경기도 파주에서 부산을 잇는 국가간도로망인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구간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예타 통과로 다음달 국토교통부가 고시할 '제1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 반영이 확실시 되고 있다.

노을대교는 B/C(비용대비편익)가 낮아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최근 국정과제인 새만금개발 가속화, 대동량기 참석한 고창-부안 해상 풍력단지 개발, 고창개별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대의 여건이 변화했다.

또 유기상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가 함께 현장설명회를 열었고, 조

의 마지막 단절구간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예타 통과로 다음달 국토교통부가 고시할 '제1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 반영이 확실시 되고 있다.

노을대교는 B/C(비용대비편익)가 낮아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최근 국정과제인 새만금개발 가속화, 대동량기 참석한 고창-부안 해상 풍력단지 개발, 고창개별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대의 여건이 변화했다.

또 유기상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가 함께 현장설명회를 열었고, 조

기착공을 촉구하는 30명의 고창·부안군민들의 서명지가 전달됐다. 여기에 전북도와 전북연구원, 지역연고 국회의원, 여러 고창군 지역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예타 통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30년 숙원이었던 노을대교 건설을 위해 고창군과 부안군의 노력이 예타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돼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을대교는 물류이동을 빠르게 하고 관제 연계성을 높여 전북 서남해안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예타 통과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의 신호탄이 되기를 희망한다. 조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해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원라인 관광벨트 기반 마련"

권익현 군수 "지역주민 부단한 노력 통한 산물"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구간인 부안고창을 잇는 노을대교가 24일 국도·국지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부안군 변산면과 고창군 해리면을 연결하는 노을대교는 약 8.86km 길이의 다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완공시 현행 63km 80분 거리를 약 7.5km, 10분으로 단축시켜 통행거리 단축 및 운

행비용 절감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노을대교 건설은 동양 최고의

노을경관을 자랑하는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관광효과를 극대화 하고 인근 고창군과 연계한 원라인 관광벨트를 구축해 전북 서남권 관광활성화에 큰 효과가 전망된다.

그동안 부안군은 권익현 군수를 비롯해 문찬기 부안군의회의장, 이원택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하나 돼 노을대교 건설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당위성을 설명했으며 주민서명운동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

권익현 군수는 노을대교 예비타당성 통과와 관련, "서해안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구간인 노을대교 건설이 예타 통과라는 큰 문턱을 넘게 됐다. 이번 결실은 부안군과 고창의 행정력뿐만 아니라 부안군의회와 지역구 의원인 이원택 국회의원의 나이가 지역주민들의 부단한 노력을 통한 산물"이라며 "앞으로 노을대교가 동양 최고의 변산반도 노을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관광형 대교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내장상동 기반 조직원 대표자회, 전봉준 장군 동상 재건립 모금 '앞장'

전봉준 장군 동상 재건립추진위원회에 기부금 514만원 전달

동학 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시에 새로운 동학 농민혁명 동상을 세우기 위한 각계각층의 성금 모금이 이어지고 있다.

내장상동 기반 조직원 대표자회는 24일 동학 농민혁명 동상 재건립에 사용 해 달라며 '전봉준 장군 동상 재건립추진위원회'에 514만원을 전달했다.

내장상동 기반 조직원 대표자회는 15개 기반 조직(동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부녀회, 노인회, 체육회, 청년회, 의용소방

대, 상동 자율방범대, 내장 자율방범대, 나누미봉사단, 내장상동농민회, 시의원 기시제·이도형) 대표자들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구성됐다.

이날 전달된 모금액은 내장상동 15개 기반 조직 대표자들이 동상 재건립에 보탬이 되기 위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마련했다.

한편, 전봉준 장군 동상 재건립 추진 위원회는 기존 전봉준 장군 동상 철거와 재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 국



민을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다. 모금액은 1인당 1만 원 이상으로 전봉준 장군 동상 재건립 추진 위원회(농협 301-0298-6115-91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은 24일 부안상설시장에서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부안군, 부안소방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민간합동 특별현장점검에 나섰다.

부안상설시장,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부안군-부안소방서-민간전문가, 민·관합동 특별현장점검 실시

부안군은 24일 부안상설시장에서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부안군, 부안소방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민간합동 특별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은 김종택 부군수가 직접 참여해 부안상설시장 점포 180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방, 전기, 건축 분야 안전점검과 함께 안전문화 확산에 주력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기간 중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점검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에 중점을 두고 시행했다. 특히 이날 현장점검에서 부안소방서는 현장점검반과 상인회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화재감지장치 안내 및 설명, 옥외소화전 사용방법 시연을 통해 초기화재대

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민간합동점검반은 부안상설시장에 있는 점포별로 소방·전기·건축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초동화제진압 시설의 겨울동파방지보강과 같은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수·보강 및 사용중지 등의 안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부군수는 "부안상설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안전관리에 각별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상인들 스스로 안전 관리에 노력해 안전한 시장, 안전한 부안군을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농기센터, 과수 피해 해충 공동방제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과수 피해를 주는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산너벌레, 꽃매미 등 돌발해충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과수에 극심한 피해를 주는 돌발해충은 5월 중·하순에 부화해 7~8월에 성충이 돼 8월 하순부터 9월까지 알을 낳고 죽게 된다.

약충은 줄기에 붙어 수액을 흡즙하고, 흰색 밀납물질을 분비해 그늘을 병을 유발한다.

성충은 1년생 어린 가지 속에 알을 낳아 나무의 생장을 방해하고, 열매가 달릴 가지가 손상되면서 피해가 크게 나타난다.

현재 정읍지역 돌발해충은 산립 인접 지역 중심으로 발생 면적이 64ha

에 이르며, 농경지로 확산하고 있어 빠르고 적극적인 방제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돌발해충 산란기에 대비해 사과와 배, 복숭아 등 8개 작목 256ha 과수농가에 공동방제 약제를 공급했다.

특히, 전년도에 돌발해충 발생이 많았던 산립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입암면, 웅동면, 철보면 등 6개 읍면동 78ha에 끈끈이 트랩을 지원해 산란기를 앞둔 성충을 포획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재 돌발해충이 본격적인 산란기를 앞두고 있어 공동방제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Image of a green field with trees under a blue sky.